



금속노조, 윤석열 퇴진 투쟁·회계공시 거부 결의

58차 대대, 4대 투쟁과제·3대 중점사업 결정 ... 노조, 모든 지부·지회 조직화 사업 전개

금속노조가 윤석열 퇴진 투쟁, 전 조직 공세적 조직화 등 2024년 사업계획을 결정했다. 더불어 윤석열 정권이 노조탄압 도구로 악용하는 조합비 회계공시 전면거부와 노조탄압 대응투쟁을 결의했다.

금속노조는 2월 28일 충북 단양 금속노조 교육연수원에서 58차 정기대의원대회를 열고, 13기 1년 차 사업계획, 투쟁방침, 산별교섭요구안, 예산안 등을 심의했다.

노조는 2024년 사업 핵심기조로 ▲윤석열 정권 퇴진 사회투쟁전선 건설 ▲저항의 성벽 민주노조 사수 ▲모든 노동자 권리 지키기 ▲조직하고 혁신하는 산별노조 건설 등을 세웠다.

노조는 올해를 관통하는 투쟁 중심구호로 ‘윤석열 날리고, 노동자 살리고, 너나 없는 투쟁으로 금속답게 승리하자’를 확정했다.

노조는 ‘2024년 윤석열 정권 퇴진과 모든 노동자의 권리를 위한 4대 핵심 투쟁과제’와 ‘금속노조 미래를 다지는 3대 중점사업’을 펼친다.

4대 핵심 투쟁과제는 ▲불평등 해



소와 제조업 미래를 위한 고용의제 투쟁 ▲윤석열 정권 퇴진 대중투쟁 ▲파업의 자유·노조할 권리 보장하는 노동법 쟁취 투쟁 ▲기후위기 시대 산업생태계의 정의로운 전환 투쟁 등이다.

3대 중점사업은 △전 조직 토론을 통한 금속노조 제도 정비, 체계 혁신 △모든 지부·지회가 만드는 공세적 조직화 사업 △산별의식 키우는 교육체계와 교육연수원 강화 등이다.

노조는 7월 중순 시기집중 공동파업과 8월 산별교섭 의제 쟁취를 위한 2차 파업을 벌일 예정이다. 9월 타임오프, 창구단일화 폐기, 산별교섭 제도화, 노조법 2·3조 개정 쟁취를 위해 정기국회 시기 확대간부 상경투쟁과 대정부 투쟁을 전개한다. 노조는 11월 9일 민주노총과 노동탄압 분쇄, 노조할 권리 쟁취, 윤석열 정권 퇴진을 위한 대규모 전국

노동자대회를 조직한다.

금속노조는 58차 대의원대회에서 2024년 산별교섭 요구안을 확정했다.

노조 모든 사업장 교섭단위가 요구하는 통일요구는 ▲좋은 일자리 창출 ▲근로시간 면제제도 개선 노사공동대정부 요구 확정 등이

다. 노조는 자연감소 인원 신규채용 등 명문화를 요구한다. 노조는 사용자 측에 ‘노사는 근로시간면제제도의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며, 정부에 국제노동기준이 요청하는 노사자율의 원칙에 입각한 근로시간면제제도의 개선을 공동으로 요구한다’라는 내용을 정부에 던지자고 제안하고 있다.

노조는 중앙교섭 요구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사 공동선언 ▲이주노동자 차별 금지▲금속산업 최저임금 통상시급 11,080원과 월 통상임금 2,504,080원 중 높은 금액 적용 등을 결정했다.

노조는 지부집단교섭 임금인상요구로 생활임금 보장과 노동소득 분배구조 개선을 위해 정기 호봉승급분 제외한 월 기본급 159,800원 정액 인상을 요구하기로 했다.

“윤석열 날리고, 노동자 살리는 나라 만들자”

58차 정기대의원대회, 13기 취임 ... 박동진 경기 조직국장 등 정기표창

금속노조가 2월 28일 충북 단양 금속노조 교육연수원에서 ‘너나없는 투쟁으로 금속답게 승리하자’ 라는 구호를 내걸고 58차 정기 대의원 대회를 열었다.

장창열 금속노조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윤석열의 폭정이 도를 넘고 있다. 노조 탄압에 맞선 노동자들의 입을 틀어막고, 거부권 남발로 헌법정신을 뒤흔고 있다”라며 “노동자, 민중에게 윤석열은 그야말로 재난이다”라고 규탄했다.

장창열 위원장은 ▲불평등 해소와 제조업 미래를 위한 고용의제 투쟁 ▲윤석열 정권을 넘어서는 대중투쟁 ▲파업의 자유,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는 노동법 쟁취 ▲기후위기 시대 산업생태계 정의로운 전환 등 금속노조 2024년 투쟁 목표를 열거하며, 노조를 둘러싼 엄중한 정세를 설명했다.

장창열 위원장은 “가장 심각한 정세는 윤석열 정권의 노조무력화 공세다. 윤석열 체제 공고화를 위해 총선 이후 금속노조의 숨통을 조여올 것이다”라면서 “윤석열 정권 날려버리고, 노동자가 살맛나는 세상, 노동자를 살리는 나라 만들자”라고 호소했다.

윤장혁 12기 금속노조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노조탄압, 검찰독재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윤석열 정권에 맞서 금속노조가 4월 총선에서 위력적인 힘을 보여주자”라며 “금속노조의 빛나는 투쟁을 기대한다. 새롭게 출범하는 13기 장창열 위원장을 포함한 모든 분께 고마움의 인



사를 전한다. 힘차게 싸워 승리하자”라고 당부했다.

금속노조는 이날 대의원대회에서 모범조직과 조합원, 연대단위에 성과 감사패 등 정기표창을 수여했다.

조직강화상은 ▲경기지부 박동진 조직국장 ▲광주전남지부 포스코사 내하청지회가 받았다. 단결투쟁상은 ▲전북지부 일진하이솔루스지회 ▲대전충북지부 테스트테크지회가 받았다. 연대투쟁상은 ▲대전충북지부 SK케미칼지회 ▲구미지부 한국오티칼하이테크지회 ▲대구지부 대구지

역지회 조양한울분회가 받았다.

노조는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침해 감시단’ ▲‘우리가 금속노조의 미래다’ 연극팀 등에 감사패를 전달했다.

노조는 더불어 12기 윤장혁 위원장과 이찬우 수석부위원장, 엄교수 사무처장, 11·12기 김동성, 권수정 부위원장, 12기 함재규, 박경선, 홍지욱, 박찬일 부위원장과 12기 노한균, 금재호, 박민구, 김현호, 문윤환, 허준 감사위원에게 공로패를 전달했다.